



▲지난 2011년 대전 원도심에 문을 연 '도시여행자'는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이자 여행관련 책들을 만날 수 있는 여행전문서점이다. 왼쪽부터 한평갤러리, 시티 페스타 '로맨틱 대전' (2016년·도시여행자 제공), 2층 문화 공간 내부.

**동네 책방
도시 아이콘이 되다**
〈5〉 대전 '도시여행자'

지난 2010년 8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대학생인 김준태·박은영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를하여 '장터 유람기'(We love market). 평소 사라져가는 고유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두 사람은 대형마트에 밀려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에 눈을 돌렸다.

첫번째 장소는 충남 금산 5일장(8월2일). 밀집모자를 둘러싼 채 시장을 찾은 이들은 한손엔 휴대폰을, 다른 한손엔는 미숫가루가 담긴 유리병을 들고 상인들을 만났다. 시장상인들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국물을 한그릇씩 대접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서다. 재래시장과의 따뜻한 만남을 기록한 '장터유람기'는 전국시정발성화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주일간의 5개 장터유람에서 두 사람은 '희망'을 보았다. 대형마트에 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열악하지만 재래시장의 고유한 정취를 잃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창업자들의 암울한 현실도 목격했다. 그즈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많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점포를 제공했지만 면밀한 준비와 소통이 부족한 나머지 옹두사마리 끝난 것이다. 그날 이후,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꿈꿨던 두 사람은 지역 최초의 여행자 카페 '도시여행자'를 열었다.



'삶은 여행'이라는 모토를 내건 '도시여행자' 전경.

travel
**삶은 여행
여행은 삶**
2030 문화 아지트



최근 대전의 원도심 대흥동에 자리한 '도시여행자'를 찾았다. 노후화된 건물과 색바랜 간판,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만 좁은 골목이 세월의 두께를 느끼게 했다. 서점 앞에 다다르자 유리창에 하얀색으로 크게 써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삶은 여행, 여행은 삶'.

'도시여행자'는 소문난 책방이자 여행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행자카페다. 지난 2011년 결혼한 김태준(32·도시여행자 대표)·박은영(32·시티페스타 예술감독)씨는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로 문을 열었지만 여행, 라이프,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아지트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2014년 여행전문서점을 오픈했다. 김씨 부부와 뜻을 같이하는 박세형(34·커피디렉터), 신승리(31·북 디렉터), 김유진(21·베이킹 파트너), 김은지(26·커피 파트너)씨가 참여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다른 책방과 달리 여행관련 팸플릿과 자료, 기념품 등이 풍성한 것도 그런 이유다.

책방은 1층 서가와 2층 여행카페로 구분돼 있다. 9평 정도의 1층 매장의 서가는 수많은 여행서적과 에세이, 라이프 스타일 관련 책자들이 가득했다. 서점 한편에는 여느 커피숍에서 볼 수 있는 음료 메뉴판과 커피머신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고객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카운터 쪽으로 눈을 돌리자 손때 묻은 표지의 방명록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들춰 보니 따뜻한 글과 그림들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행관련 책, 소품 하나 하나 눈길 가게 많아 즐겁네요. 도시여행자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당장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장소예요!!-2015년 11월15일 JY with YJ".

이런 특별한 매력은 한달 평균 500~1000권의 책이 판매되는 성과로 이어진다. 온라인 서점에 비해 비치된 도서는 많지 않지만 여행경험이 풍부한 김씨 부부와 북 디렉터, 그리고 전문가 수준의 단골 독자들이 엄선한 추천도서 덕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약주문이 10%에 이를 만큼 열혈팬도 많다. 온라인 서점에 비해 배송되기까지 시일이 걸리지만 독자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 또한 매월 4권의 책을 '알아서' 보내달라고 전화로 신청하는 '묻지마 구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도시여행자'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점의 2층(16평 규모)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이자 문화플랫폼이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여행경험이 많은 김씨 부부의 여행여정이 생생하게 녹아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 또한 여행 사진이나 그림 등이 전시된 한평 갤러리도 만날 수 있다. 특히 2층은 21개에 이르는 소모임 활동과 작가와의 대화 등이 펼쳐지는 문화 난장이기도 하다. 음악 모임 '음악도시', 라면을 먹으며 세상이야기를 나누는 라면 모임 '4분 30초', 산을 즐기는 등산모임 '산타', 축구여행 모임, 첫 독서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뚝지리 모임' 등 다양하다.

사실 '도시여행자'는 다른 서점과 달리 크고 작은 문화예술관련 기획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전 미장센 단편영화제 큐레이터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박은영씨는 남편과 함께 도시여행자 여행페스티벌(시티 페스타) '로맨틱 대전'(2016년), '아름다운 공존'(2017년) 등을 선보여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티 페스타는 도시여행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예요. 삶은 여행이라는 모티브를 내걸고 매년 가을에 진행하는데 핵심은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기치 있는 일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옛 충남도청사(등록문화재 18호)를 시티페스타 무대로 기획한 것도 그 때문이예요. 한때 옛 충남도청사를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해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랬거든요."(김준태)

김씨 부부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많다. 우선 공간이 협소한 현재의 서점을 인근 4층 건물로 이전해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진행하고 싶단다. 장기적으로는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는 여행도서관과 여행자은행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행도서관은 '행운의 편지'처럼 20권의 릴레이 여행 독후감을 모아 서가에 비치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에게 무료로 책을 보내면 그 독자는 책을 읽고 독후감 카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지인에게 책을 전달하는 방식이예요. 그리고 마지막 20번째로 책을 받은 사람이 책과 독후감을 '도시여행자'에게 반송하면 프로젝트는 끝나게 돼요. 현재 뉴질랜드, 콜롬비아의 한인청년들에게 책이 보내졌는데 아마도 2년 후쯤 첫번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행자은행은 여행을 가고 싶지만 경비가 부족한 청년에게 저리가 여행경비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예요. 그러려면 저리가 하루 빨리 부지가 돼야겠죠(웃음)"(박은영)

/대전=박진현문화사회연구소 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시리즈는 삼성언론재단의 기획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수많은 책이 비치된 매장 한편에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들어서 있다.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